

43장 구원의 약속과 이스라엘의 죄

1. 구원의 약속 (43:1-7)

여호와와 그의 종인 이스라엘의 불신과 불순종을 지적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약속이다. 그러한 급격한 반전은 여호와에게서 나온다. 여호와께서는 야곱을 부르시고 그를 창조하며 조성하신 자로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43:1) 하고 선언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불순종하는 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의 능력으로써 그를 구속하실 것을 약속하신다.

이 부분에서는 ‘나’와 ‘너’라는 인칭대명사가 반복되는 것이 인상적이다. 야곱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셨고, 그들이 물과 불의 시련을 지날 때에도 그들과 함께 계셨다. 구체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에도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내주셨다(43:3). 이것은 페르시아가 이집트 지역을 점령하면서 유다를 회복시켰던 사건을 가리킨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속하여 주신 것은 “너를 사랑” 하였기 때문이다(43:4). 주님께서는 무한한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사방에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한데 불러 모으시는데(참조 사 11:11), 이것은 여호와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속의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신다.

2.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증인인 이스라엘 (43:8-13)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그의 종으로 세움을 받았다(43:9, 10, 12). 그러나 그들은 소경이고 귀머거리였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서 그분의 증인과 종으로 삼으셨다. 그들 자체로서는 증인과 종의 역할을 할 수 없었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러한 위치에 두셨다. 여호와와는 태초부터 ‘나는 그’이신 분이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으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을 통하여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알리셨고, ‘나는 그’이신 분이므로 모든 것의 근원과 목적이 되심을 알리셨다.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다른 구원자가 없다.

3. 바벨론에서 구원함을 받은 백성 (43:14-2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 (43:14)라는 이름을 선언하시면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바벨론으로 가시자 바벨론 사람들은 도망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의 왕**” (43:15)이라고 선언하시고, 그러한 분이므로 그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여 주셨다. 전에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에는 바다를 가르셨지만, 이제는 사막에 강을 내는 방식으로 새 일을 행하여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 곧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을 바라라고 말씀하신다. 이제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여서 부정한 들짐승도 마시게 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흡족히 마시게 할 것이라 말씀하신다. 광야를 낙원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방식으로 새로운 구원을 행하실 것을 선언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도 새롭게 창조되어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도록 하신다.

4. 이스라엘의 죄를 기억지 않으시는 여호와 (43:22-28)

구원에 대한 약속과 함께 이스라엘의 두 가지 죄를 지적하신다. 첫째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것이다. 둘째는 헛된 제사로 하나님을 괴롭게 한 것인데, 이것을 반어법으로 표현하였다. 하나님께 바르게 간구하지 않으면서 종교 의식만 행하는 것은 이교적인 태도이다. 자기들이 드리는 제물로 신을 조종하려는 것인데, 이러한 태도는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시고 거룩한 자이시며 ‘내가 곧 그’ 이심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는 격이 된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선포하시는 한편, 이교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그들의 죄를 지적해 내셨다.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만, 여호와께서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43:25)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앞에 나아와서 변론하자고 하신다.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선언하시면서 그들의 조상이 지은 죄를 지적하시고 성전이 파괴된 이유에 대하여서도 상기시켜 주신다(43:26-28).

43장 익힘 문제

1. 여호와께서 야곱을 창조하시며 조성하신 자로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빈 곳을 채우십시오.
“내가 너를 □□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 □이라.” (1절)
2. 여호와께서 야곱 대신 속량물로 어느 나라들을 주셨다고 하셨습니까? (3절)
3. 여호와께서는 소경과 귀머거리인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무엇을 삼으신다고 하셨습니까? (8-12절)
4.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한 말을 14, 15절에서 찾아서 써 보십시오.
5.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으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21절)
6.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찬송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그분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22절)
7. 여호와는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의 허물을 도말하신다고 하십니까? (25절)